

진장성 동단과 낙랑군 수성현

윤 병 모*

국문초록

본고는 진장성 동단과 갈석 그리고 낙랑군 수성현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진서』 「지리지」와 『사기색은』, 『통전』에 보인 낙랑군 수성현은 진장성과 연계되어 나타난다. 이 문제는 『태강지리지』에 의해서도 연결된다. 진장성과 갈석, 낙랑군 수성현이라는 3개의 키워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통전』 등에 인용된다. 그럴 경우 『진서』 「지리지」에 나온 낙랑군 6현 중의 수성현은 평양의 낙랑이 요동으로 이전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통전』에 나오는 갈석은 요동과 요서의 경계에 있는 갈석으로 인정된다. 곧 낙랑군 수성현은 의무려산 갈석의 인근으로 판단된다. 낙랑군 수성현은 432년 이후에 다시 유주 부근으로 이전한다. 이는 낙랑군이 북경 인근으로 교치된 상태에 해당한다. 500년대 이후 북위인들의 묘지명에서 나타나는 낙랑수성인들은 바로 이 시기의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대 원정군의 명칭에서 보이는 수성도는 실제 편성된 군의 명칭으로 이는 요동 낙랑군 수성현에서 명칭이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연장성, 진장성, 진장성동단, 낙랑군 수성현, 갈석, 요동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진장성 동단과 낙랑군 수성현 |
| II. 진장성 동단과 요동 및 갈석 | IV. 맺음말 |

I. 머리말

진장성과 낙랑군 수성현 그리고 그에 수반한 갈석의 문제는 현재 3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곧 일제시기 관 학자들이 낙랑군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으로 비정한 이래 중국학계가 이를 이어받아 진장성이 평양 서쪽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진장성과 수성현 등 낙랑군은 난하 일대라는 주장이 북한학계와 한국학계의 일부에서 주장된다. 이와 같은 양설을 절충하여 요서에 보이는 낙랑군 수성현은 후대에 교치된 것이며 진장성도 후대

*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 gsyho9@naver.com

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한국학계 일부에서 주장된다. 진장성에 대한 문제를 중심을 연·진장성에 대한 연구사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진장성 동단을 『진서』 「지리지」 낙랑군 수성현 조에 나오는 진장성을 근거로 황해도 북쪽 遼安으로 보는 견해는 일찍이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에 의해 비롯되었다.¹⁾ 낙랑군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으로 보는 견해는 이병도²⁾에 의해 이어지지만 수성을 현재의 지명인 수안으로 대입하여 보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나바의 견해는 중국인인 왕국량에게도 이어져 진장성 동단을 수안으로 보았고³⁾ 이문신은 압록강까지 보았다.⁴⁾ 동주신⁵⁾과 담기양⁶⁾에 의해 대동강 또는 평양 서남쪽으로 주장되며 광말약과 담기양의 지도집에 연장성은 청천강까지로 나오고 진장성은 평양 서쪽으로 표시된다.⁷⁾ 1981년 중국에서 적봉 남쪽에 있는 적남장성 곧 연북장성의 주향을 적봉에서 오한기와 북표,⁸⁾ 부신⁹⁾에 진입한 것으로 보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연·진장성은 요하이서에서 그치고 요하이동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1986년에 풍영겸 등은 연·진장성의 노선을 적봉에서 오한기를 거쳐 북표와 부신에서 끝나며 특히 진장성은 부신에 진입한 이후부터는 불명확하다고 주장한다.¹⁰⁾ 80년대 전후만 하여도 중국학계에서 연·진장성의 동단은 요하이서에서 끝났지만 90년대에 들어와서 북표와 부신에 이어 창무나 심양, 무순을 거쳐 압록강에 이른다고 주장된다.¹¹⁾ 80년대 후반 북한에서 대령강장성이 발견되며 중국학계의 풍영겸 등에 의해 대령강장성을 연·진장성의 동단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된다.¹²⁾ 대령강장성에서 연나라 유물이 발견되었다며 중국학계는 대령강장성을 연장성으로 보았다.¹³⁾ 하지만 연 유물의 전파가 결코 연 세력의 파급은 아니라고 주장된다.¹⁴⁾ 북한학계에서 대령강장성이 고구려 또는 고려시대의 천리장성으로 정리되며 이로 인해 중국학계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다.¹⁵⁾ 진장성과 대령강장성에 대해 북한학계는 2000년대 들어와 많은 발표가 진행된다.¹⁶⁾ 북한학계는 연·진장성을 산

- 1) 稻葉岩吉,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 『史學雜誌』 21: 2, 1910, 39쪽.
- 2) 이병도, 「漢四郡問題의 研究」,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148쪽.
- 3) 王國良, 『中國長城沿革考』, 商務印書館, 1928, 30쪽.
- 4) 李文信, 「中國北部長城沿革考」上, 『社會科學輯刊』 1979: 1, 1979, 150쪽.
- 5) 佟柱臣, 「考古學上漢代及漢代以前的東北疆域」, 『考古學報』 1956: 1, 1956, 12쪽.
- 6)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釋文匯編 東北卷』,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8, 38쪽.
- 7) 郭沫若 主編, 『中國史稿地圖集』上, 中國地圖出版社, 1979, 23쪽;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第1·2冊, 中國地圖出版社, 1982, 42쪽.
- 8) 張維華, 『中國長城建置考』上, 中華書局, 1979, 128쪽; 項春松, 「昭烏達盟燕秦長城遺址調查報告」,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 文物出版社, 1981, 7~8쪽.
- 9) 鄭紹宗, 「河北省戰國·秦·漢時期古長城和城障遺址」,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 文物出版社, 1981, 34쪽.
- 10) 馮永謙·何溥濤, 『遼寧古長城』, 遼寧人民出版社, 1986, 36쪽.
- 11) 홍승현, 「중국과 일본 학계의 燕·秦·漢長城 연구와 주이」, 『동북아역사논총』 35, 2012, 372쪽.
- 12) 馮永謙, 「東北古代長城考辨」, 『東北亞歷史與文化』, 遼沈書社, 1991, 26쪽; 鄭君雷, 「大寧江長城的相關問題」, 『史學集刊』 1997: 1, 1997, 70쪽.
- 13) 閻忠, 「燕北長城考」, 『社會科學戰線』 2, 1995, 183~184쪽.
- 14) 洪承賢, 「燕·秦·漢長城수축을 통해 본 衛滿朝鮮의 西界」, 『韓國史學報』 70, 2018, 13쪽.
- 15) 손영중, 「대령강반의 옛 장성에 대하여」, 『력사연구』 122, 1987, 24~25쪽; 손영중, 「대령강장성 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1987: 2, 1987, 44~45쪽; 한인호, 「대령강장성의 축조경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2: 1, 1992, 27쪽.
- 16) 최인철, 「중국 진나라 만리장성의 위치문제에 대하여」, 『력사과학』 4, 2002; 손영중, 「진나라 만리장성의 동단(1)」, 『사회과학원학보』 1, 사회과학출판사, 2003; 손영중, 「진나라 만리장성의 동단(2)」, 『사회과학원학보』 2, 사회과학출판사, 2003; 손영중, 「대령강장성의 구조와 년대에 대하여」, 『력사과학』 3, 2003; 최승택, 「고구려의 방어진 대령강장성」, 『사회과학원

해관 부근에서 끝나며 요서지역의 두 갈래 장성은 임시 방어 시설이라 주장한다.¹⁷⁾ 북한과 한국학계 일부에서는 진장성이 난하 유역의 갈석산에 있다고 주장된다.¹⁸⁾ 진장성이 난하의 갈석산에 있다는 설은 잘못된 것이라며 낙랑군 수성현은 요서 및 하북 지역으로 교치된 것으로 본 견해도 제기된다.¹⁹⁾

최근 한국학계에서는 『중국역사지도집』을 검토한 끝에 연·진장성이 청천강과 평양 서쪽이라 주장하는 중국학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²⁰⁾ 또 최근 중국에서 발간된 『遼寧省 燕秦漢長城 資源調查報告』²¹⁾를 기반으로 중국측이 연·진·한 장성을 대령강 장성과 연결하고 그 계선을 압록강 서안에서 평안도 북부까지 연결한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경우도 있다.²²⁾ 연장성이 현재의 요양 북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요동의 창무와 철령 쪽으로 이어졌다는 중국학계의 견해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²³⁾도 제기된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학계 연구자들은 연·진장성이 요하를 넘지 못하였다는 견해²⁴⁾를 가지고 있다. 이상을 토대로 진장성과 또 그에 수반한 낙랑군 수성현 그리고 갈석을 검토하여 낙랑군 수성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풀어 보기로 한다.

II. 진장성 동단과 요동 및 갈석

진장성 동단을 검토하기 이전에 진장성 앞서 있었던 연장성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자. 『사기』 「홍노열전」에 연이 장성을 쌓고 조양에서 양평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연장성은 애초부터 동호를 막을 목적으로 쌓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진이 연 등 6국을 멸망시킨 후에 진시황은 몽염 등을 동원하여 임조로부터 요동에 이

-
- 학보』, 2004; 손영중, 「진나라 만리장성의 동단과 룡동군의 동천」, 『한4군 문제와 랑랑문화의 조선적성격』, 사회과학출판사, 2010(이상은 오대양·조원진, 「2000년대 북한학계의 단군·고조선연구 현황 검토」, 『先史와 古代』 54, 2017, 80쪽 참조).
- 17) 오대양·조원진, 앞의 논문, 2017, 80쪽.
- 18) 리지린, 『고조선 연구』, 과학원출판사, 1963, 66쪽; 강인숙, 「기원전 4~3세기 고조선의 서변」,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204쪽; 尹乃鉉, 「漢四郡의 樂浪郡과 平壤의 樂浪」, 『韓國學報』 41, 1985, 8쪽; 윤내현, 「朝·燕戰爭의 전개와 국경 변화」, 『단군학연구』 20, 2009, 256쪽.
- 19) 千寬宇, 「灤河 下流의 朝鮮」, 『史叢』 21·22, 1977, 27쪽; 노태돈,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23, 1990, 21쪽; 이성규, 「4세기 이후의 낙랑교군과 낙랑유민」, 『동아시아역사속의 중국과 한국』, 도서출판 서해문집, 2005, 217쪽; 鄭雲龍, 「樂浪郡 滅亡 以後 遺民의 方向」, 『韓國史學報』 70, 2018, 111쪽; 공식구, 「요서지역으로 옮겨간 낙랑군의 추이」, 『白山學報』 115, 2019, 300쪽.
- 20) 공식구, 「中國歷史地圖集의 戰國時期 燕 長城 고찰」, 『백산학보』 99, 2014; 공식구, 「中國歷史地圖集의 평양지역까지 연결된 秦 長城에 대한 검토」, 『先史와 古代』 43, 2015.
- 21) 遼寧省文物局 編著, 『遼寧省 燕秦漢長城 資源調查報告』, 文物出版社, 2017.
- 22) 배현준, 「연진한 장성에 대한 중국학계의 최근 연구 동향-『요령성 연진한 장성 자원 조사 보고』 분석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72, 2023, 162쪽.
- 23) 吳江原, 「戰國時代 燕나라 燕北長城 동쪽 구간의 構造的 實體와 東端」, 『先史와 古代』 33, 2010, 196쪽.
- 24) 박대재,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2006, 77쪽; 이종수, 「遼東地域 燕秦漢 長城 調査現況 및 問題點 檢討」, 『韓國史學報』 43, 2011, 269쪽; 조원진, 「고조선과 秦나라의 대외관계 연구」, 『사학연구』 129, 2018, 211쪽; 조원진, 「고조선과 燕나라의 전쟁과 요동」, 『先史와 古代』 62, 2020, 36쪽; 오현수, 「수경주(水經注)의 고조선 지명 연구」, 『고조선단군학』 49, 2022, 19쪽; 윤병모, 「연·진과 고조선의 전쟁」, 『軍史』 122, 2022, 276쪽; 조원진, 「漢書의 古朝鮮·漢郡縣·箕子 자료에 대한 검토」, 『東洋學』 92, 2023, 21쪽.

르기까지 장성을 쌓았는데 그 길이가 만여 리가 된다고 기록된다.²⁵⁾ 진장성은 흉노를 막기 위한 목적임을 『사기』 「흉노열전」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²⁶⁾ 『사기』 「흉노열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장성은 그 끝이 양평이라 한 점과 진장성은 요동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우선 연장성의 끝인 양평에 대해 검토해 보자.

양평에 대해서는 현재 요양으로 비정되는데 양평은 요하의 동쪽에 있음이 확인된다.²⁷⁾ 『한서』 「지리지」에는 양평과 함께 요양이 나온다.²⁸⁾ 『삼국지』 「공손탁전」에는 공손씨 정권의 首府 역할을 한 양평성에 대해 나온다.²⁹⁾ 『신당서』 「지리지」도 요양이 양평성임을 전하고 있다.³⁰⁾ 이러한 사료를 검토할 때에 『사기』 「흉노열전」에 나오는 양평 곧 연장성의 동단은 요하 동쪽에 있는 요양까지 연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기』 「흉노열전」에 연장성이 양평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 『괄지』에도 진장성의 동단이 요수까지 연결된다고 하였다.³¹⁾ 『사기』 제후왕연표에 의하여도 연은 요양까지 이르렀음을 기록하고 있다.³²⁾ 이 경우 연의 장성이 아니고 연의 경계가 요양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기록한 것인데 연과 요양을 연결한 것은 『사기』의 기록으로 매우 특이한 것에 해당한다. 『사기』 기록보다는 비록 후대의 사료이기는 하지만 『삼국지』에서도 장성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삼국지』 「부여전」에 의하면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³³⁾ 당시 부여는 오환과 인접하고 있었는데³⁴⁾ 오환은 요서지역에 자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³⁵⁾ 따라서 오환의 동쪽에 위치한 부여가 장성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 장성은 부신에 위치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唐代 장수절은 『사기정의』에서 진장성이 요수에 이르렀음을 기록하고 있다.³⁶⁾ 진장성이 연장성을 기본으로 수축한 것이라 할 때에 연 본토의 2, 3배가 넘는 지역에 연장성을 구축한 것은 믿기 어렵다며 연·진장성을 산해관 장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연·진장성과 한의 塞를 구분하여 부신에 이르는 한의 새는 연·진장성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³⁷⁾ 이런 근거는 『후한서』의 ‘진은 장성을 일으켰고 한은 새를 일으켰다.’³⁸⁾라는 사실을 증시한 것이다.

『회남자』에 ‘진장성은 서로는 유사에 미치고 북으로 요수를 찌르고 동으로 조선에 이르는 장성을 쌓았다.’³⁹⁾는 것과 『염철론』에 ‘연은 갑석에 의해 새를 이루고 사곡에 의해 끊기었으며 요에 의해 둘러 싸여 있다.’⁴⁰⁾

25) 『史記』卷110 匈奴列傳, “筑長城以拒胡……燕亦筑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谷 漁陽 右北平 遼西 遼東郡以拒胡……起臨洮至遼東萬餘里”; 『史記』卷88 蒙恬列傳, “收河南 筑長城 因地形 用制險塞 起臨洮 至遼東 延袤萬餘里”

26) 『史記』卷48 陳涉世家, “乃使蒙恬北筑長城而守藩籬”

27) 『山海經』卷13, “潦水出衛臯東……東南注渤海入潦陽 潦陽縣屬潦東”; 『水經注』卷14 大遼水, “遼水出塞外衛白平山 東南入塞 過遼東襄平縣西”

28) 『漢書』卷28 地理志, “遼東郡……縣十八 襄平……遼陽”

29) 『三國志』卷8 魏書 公孫度傳, “宣王令軍穿圍 引兵東南向 而急東北 即趨襄平”

30) 『新唐書』卷48 地理志, “渡遼水至安東都護府五百里 府 故漢襄平城也”

31) 『括地志』卷8, “本秦長城 首起岷州西十二里 延袤萬餘里 東入遼水”

32) 『史記』卷17 漢興以來諸侯王年表, “自雁門 太原以東至遼陽 為燕代國”

33) 『三國志』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夫餘, “夫餘在長城之北 去玄菟千里”

34) 『史記』卷129 貨殖列傳, “北鄰烏桓 夫餘 東縉穢貉 朝鮮 真番之利”

35) 『後漢書』卷120 烏桓鮮卑列傳, “因徙烏桓於上谷 漁陽 右北平 遼西 遼東五郡塞外”

36) 『史記正義』卷88, “遼東郡在遼水東 始皇築長城東至遼水”

37) 강인숙, 앞의 논문, 1987, 207쪽.

38) 『後漢書』卷120, 烏桓鮮卑列傳, “天設山河 秦築長城 漢起塞垣”

39) 『淮南子』卷18 人間訓, “亡秦者 胡也 因發卒五十萬 使蒙公 楊翁子將 築修城 西屬流沙 北擊遼水 東結朝鮮”

라는 기사도 고려하여야 한다. 『전한기』의 요수를 새⁴¹⁾로 한다는 기사도 참고해야 한다. 두우는 장성이 요수를 끊고 고구려 구계에 진입하였고 그 유지가 남아 있다는 사실⁴²⁾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연·진장성을 구분할 경우 진장성은 요하에 이르렀던 것임이 분명하지만 연장성이 『사기』 「흉노열전」의 양평을 근거로 하여 요하를 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두우의 전문에도 불구하고 연장성 유적이 양평 곧 요양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지 않다. 다만 『한서』에 요양과 양평이 겹쳐있을 때 또 『신당서』에 요동성이 한 양평이라 하였을 때에 양평의 위치를 요양으로 설정할 수 있다. 두우의 전언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두우의 당대까지는 토축된 연장성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고구려 천리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고구려 천리장성⁴³⁾이 토축으로 인정할 때에 오늘날 회덕에서 노변강으로 그 흔적을 남긴다면⁴⁴⁾ 두우의 전언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연장성의 유적은 아니지만 양평성이 『요사』 등에 나오는 요양고성⁴⁵⁾이 아니고 태자하 동안의 신성묘로 보는 견해⁴⁶⁾도 참고할 수 있다. 진장성이 연장성을 그대로 수축하였다고 한다면 진장성의 동단은 부신에서 토석축축으로 끝났으며 토축으로 요하까지는 이어졌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사기』 「진시황본기」와 「몽염열전」, 「흉노열전」에 전하는 진장성의 동단이 요동이라 기록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사기』 「진시황본기」⁴⁷⁾에 진장성의 동단을 음산에서 요동까지로 기록하며 「몽염열전」⁴⁸⁾과 「흉노열전」에는 임조로부터 요동까지로 기록된다. 진장성의 동단으로 기록되는 『사기』 「몽염열전」과 「흉노열전」의 요동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사기』 「진시황본기」와 「육국연표」, 「자객열전」에 연태자를 공격하며 나오는 燕薊城⁴⁹⁾이 검토된다. 이어 요동이 등장⁵⁰⁾하고 진2세가 갈석에 이르러 요동에서 돌아왔다고 한 점⁵¹⁾도 고려된다. 『사기』 「항우본기」에 연왕 한광을 요동왕으로 임명한 점⁵²⁾과 『사기』 「월표」에 연을 나눠 요동을 삼은 기록,⁵³⁾ 『사기』에서 요동을 연의 끝으로 인식한 사실⁵⁴⁾ 등으로 볼 때에 『사기』에서 말하는 요동은 현재의 요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⁵⁵⁾ 『사기』 「유림열전」과 『한서』 「무제기」에 나오는 요동고묘 사건의 요동⁵⁶⁾도 요서 차

40) 『鹽鐵論』卷9 險固, “燕塞碣石 絕邪谷 繞援遼”

41) 『前漢紀』卷14 孝武皇帝紀5, “漢興以為其遠難守 故遼水為塞”

42) 『通典』卷186 邊防 高句麗, “今驗長城東截遼水而入高麗 遺址猶存”

43)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 “築長城 東北自扶餘城 東南至海 千有餘里”

44) 吉林省文物志編委會, 『懷德縣文物志』, 1984, 107쪽.

45) 『遼史』卷38 地理志 東京道, “東京遼陽府 本朝鮮之地”

46) 王成生, 「從考古資料看西漢遼東等五郡治及都尉治的地望」, 『遼寧考古文集(二)』, 科學出版社, 2010, 366쪽; 이종수, 「요하 평원지역 ‘燕 유적’의 특징과 사용집단에 대한 재검토 - 연 유이민 집단 물질문화와 관련하여 -」, 『동북아역사논총』 44, 2014, 82쪽.

47) 『史記』卷6 秦始皇本紀, “地東至海暨朝鮮 西至臨洮 羌中 南至北向戶 北據河為塞 并陰山至遼東”

48) 『史記』卷88 蒙恬列傳, “用制險塞 起臨洮 至遼東 延袤萬餘里……起臨洮屬之遼東 城塹萬餘里”

49) 『史記』卷34 燕召公世家, “燕王亡 徙居遼東 斬丹以獻秦 三十三年 秦拔遼東 虜燕王喜 卒滅燕”

50) 『史記』卷15 六國年表, “二十九 秦拔我薊 得太子丹 王徙遼東 三十三 秦虜王喜 拔遼東 秦滅燕”; 『史記』卷86 刺客列傳, “十月而拔薊城 燕王喜 太子丹等盡率其精兵東保於遼東”

51) 『史記』卷6 秦始皇本紀, “春 二世東行郡縣 李斯從 到碣石 并海 南至會稽 而盡刻始皇所立刻石……制曰 可 遂至遼東而還”

52) 『史記』卷7 項羽本紀, “徙燕王韓廣為遼東王”; 『史記』卷8 高祖本紀, “燕將臧荼為燕王 都薊 故燕王韓廣徙王遼東”

53) 『史記』卷16 秦楚之際月表, “燕分為遼東”

54) 『史記』卷40 楚世家, “北遊目於燕之遼東而南登望於越之會稽”

55) 권오중, 「古代 遼東郡의 位置問題 試論」, 『吉玄益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1996, 67쪽.

려7)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를 보아도 분명해 진다. 요동고묘가 요서에 있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학계의 지적⁵⁸⁾이 있어 왔다.

『한서』 「지리지」 요동군 조와 『후한서』 「군국지」의 요동속국 조에 無慮縣이 들어가 있는 점도 검토하면 요동의 의미는 더욱 분명하여 진다.⁵⁹⁾ 때문에 한나라 요동군의 기준은 오늘날 요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려산에 있음이 지적된다. 곧 요동은 오늘날 요하의 서쪽까지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⁶⁰⁾ 『사기』 「소진열전」에서 상곡부터 요동까지 땅은 넓으나 인민이 희소하다⁶¹⁾고 기록된다. 『염철론』에서 말하는 度遼東⁶²⁾의 경우 요동은 요수가 아닌 요동을 건너 조선을 공격하였다는 뜻이며 이 경우 조선은 요하의 동쪽에 있다는 의미를 가리킨다. 이럴 때 패수를 끊고 조선을 멸하였다는 의미의 조선과 상통한다.⁶³⁾ 『사기』 「소진열전」⁶⁴⁾에서 조선이 먼저 나오고 요동이 나중에 나온 것은 이때의 조선이 요동을 넘어 연에 가까이 있었던 시기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⁶⁵⁾ 『사기』에서 요하가 요동의 기준이 되지 않았음은 요수가 『사기』는 물론 『한서』에서 일절 등장하지 않은 점에서도 증명된다. 정통사서에 요수라는 명칭은 부분적으로는 『후한서』에 나오고 보다 분명하게 『삼국지』에서 출현한다. 물론 비정통 사서로 『회남자』에서 요수가 나오는 것은 확인된다.

갈석에 대해서는 『사기』 「진시황본기」와 「효무본기」에 등장하는데 진시황과 진2세 그리고 한문제 가 갔다는 갈석⁶⁶⁾은 하북성 창려의 갈석으로 인정된다. 본고에서는 고대의 창려와 현재의 창려에 대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북성 창려의 갈석을 산해관 갈석으로 부르고자 한다. 『사기』 「소진열전」⁶⁷⁾에는 갈석이 연의 남쪽에 있다고 하여 『사기』의 갈석은 한 곳에 있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진서』에 의하여도 갈석은 고죽과 창해로 연결되며 이 경우 갈석은 산해관 갈석 임이 분명하다.⁶⁸⁾ 『북사』에도 갈석은 창해와도 연결된다.⁶⁹⁾ 『회남자』와 『한서』에서는 갈석을 지나 조선이 있고 현도와 낙랑이 있음을 전하고 있다.⁷⁰⁾ 이는 『사기』 「소진열전」에서 조선이 먼저 나오고 요동이 다음에 나온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곧 산해관 갈석을 지나면 조선이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한서』의 경우는 『사기』 「소진열전」에서 상곡부터 요동까지 땅은 넓으나 인민이 희

56) 『史記』 卷121 儒林列傳, “是時遼東高廟災”; 『漢書』 卷27 五行志, “武帝建元六年六月丁酉 遼東高廟災”

57) 『漢書』 卷28 地理志, “遼西郡 秦置……縣十四 且慮 有高廟”

58) 강인숙, 앞의 책, 1987, 195쪽.

59) 『後漢書』 卷5 孝安帝紀 “屬遼東郡 慮音閭 有醫巫閭山 因以爲名焉”

60) 김한규, 「歷史上 ‘遼東’의 概念과 ‘中國史’의 範疇」, 『吉玄益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1996, 15쪽; 윤병모, 「연·진과 고조선의 전쟁」, 『軍史』 122, 2022, 273쪽.

61) 『史記』 卷129 貨殖列傳, “上谷至遼東 地踔遠 人民希 數被寇”

62) 『鹽鐵論』 卷8 伐功, “燕襲走東胡 辟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

63) 『鹽鐵論』 卷8 誅秦, “秦既并天下 東絕沛水 並滅朝鮮”

64) 『史記』 卷69 蘇秦列傳, “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樓煩 西有雲中九原 南有噶沓易水 地方二千餘里”

65) 윤병모, 「건장 동대장자유적과 고조선」, 『동북아고대역사』 4, 2021, 73쪽.

66) 『史記』 卷6 秦始皇本紀, “始皇之碣石 使燕人盧生求羨門 高誓 刻碣石門……春 二世東行郡縣 李斯從 到碣石”; 『史記』 卷12 孝武本紀, “并海上 北至碣石 巡自遼西 歷北邊至九原”

67) 『史記』 卷69 蘇秦列傳, “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 遼東……南有碣石”

68) 『晉書』 卷1 帝紀, “遂進師 經孤竹 越碣石 次于遼水”; 『晉書』 卷23 志樂下 碣石, “東臨碣石 以觀滄海”

69) 『北史』 卷2 魏本紀, “登碣石山 觀滄海 大饗群臣於山上 班賞進爵各有差 改碣石山爲樂遊山 築壇記行於海濱”; 『北史』 卷7 齊本紀, “丁巳 登碣石山 臨滄海”

70) 『淮南子』 卷5 時則訓, “東方之極 自碣石山過朝鮮”; 『漢書』 卷64 嚴朱吾丘主父徐嚴終王賈傳, “東過碣石以玄菟 樂浪爲郡”

소하다는 점을 다시 상기하면 갈석 이후에 현도와 낙랑으로 바로 연결되는 의미를 가진다.

『진서』에 285년부터 289년 사이에 진장성을 수축하여 온성부터 갈석에 이르렀고 3천리에 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⁷¹⁾ 온성은 제수와 연관이 있다.⁷²⁾ 온성이 제수에 인접하였다면 『진서』 「당빈전」에서 보이는 3천리 장성은 산동성 제수부터 시작하여 갈석에 이르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갈석의 경우 산동성 제수부터 시작한 3천리 장성이 산해관 갈석에 이르렀다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거리에 해당한다. 『진서』 「당빈전」에서 전하는 갈석은 3천리라는 기준을 볼 때에 『신당서』 「지리지」에서 말하는 갈석 곧 유성 동쪽의 의무려산 갈석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구당서』에 의하여도 유주로부터 요수까지는 2천여 리로 기록된다.⁷³⁾ 따라서 『진서』 「당빈전」에 전하는 온성으로부터 갈석까지의 3천리는 요하와 가까운 의무려산 갈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의무려산 갈석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된다.

장성은 북제 문선제 시기에 와서 다시 축조된다.⁷⁴⁾ 『주서』와 『북사』에 579년 안문에서 갈석에 이르는 구간의 장성을 수축한 사실을 전한다.⁷⁵⁾ 『수서』에도 장성이 있음을 적고 있다.⁷⁶⁾ 북제로부터 수에 이르는 구간의 갈석과 장성은 산해관 갈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북제시기에 들어와 산해관 갈석에 장성이 다시 수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진서』 「당빈전」에 전하는 3천리 장성 곧 의무려산 갈석과는 분명히 다르다. 북제의 장성은 수에 이어졌고 명대의 장성 수축까지도 이어진다.⁷⁷⁾ 현재 중국학계에서는 명대의 장성이 북제의 장성을 수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⁷⁸⁾ 지리적 관점을 살펴어도 산해관 갈석에 연·진장성이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⁷⁹⁾ 우선 난하가 있고 그 동북에 하북성 창려현이 있으며 창려현 바로 위쪽에는 갈석산이 있다. 동북으로 조금 더 가야 명대의 산해관 장성이 나온다. 이런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북제시기의 장성은 연·진대 장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지적된다.⁸⁰⁾

갈석과 장성이 연동되어 나오는 점은 『태강지리지』에 의해 처음 기록되고 『통전』에 의해 인용된다. 두우의 『통전』에서 갈석에 대해 우갈석과 좌갈석으로 구분화해 표현한다.⁸¹⁾ 우갈석은 바다 가까운데 있고 북평군 남쪽 노룡현에 있으며 고구려에 있는 갈석은 좌갈석으로 기록된다.⁸²⁾ 여기서 우갈석의 ‘夾右碣石’은 우갈

71) 『晋書』 卷42 列傳 唐彬, “北虜侵掠北平 以彬為使持節 監幽州諸軍事 領護烏丸校尉……遂開拓舊境 卻地千里 復秦長城塞 自溫城泊于碣石 綿亘山谷且三千里 分軍屯守 烽堠相望”

72) 『水經注』 卷7 濟水, “濟水故瀆于溫城西北東南出 逕溫城北”

73) 『舊唐書』 卷81 韋挺, “謂挺曰 幽州以北 遼水二千餘里無州縣 軍行資糧無所取給 卿宜為此使”

74) 『北齊書』 卷4 文宣帝紀, “先是 自西河總秦戍築長城東至於海 前後所築東西凡三千餘里”; 『北齊書』 卷17 斛律羨傳, “自庫堆戍東拒於海 隨山屈曲二千餘里 其間二百里中凡有險要 或斬山築城”

75) 『周書』 卷7 宣帝紀, “發山東諸州民 修長城”; 『周書』 卷30 于翼傳, “大象初 徵拜大司徒 詔翼巡長城 立亭鄣 西自雁門 東至碣石 創新改舊”; 『北史』 卷23 列傳, “大象初 徵拜大司徒 詔翼巡長城 立亭鄣 西自雁門 東至碣石 創新改舊”

76) 『隋書』 卷30 地理志, “十八年改名盧龍 大業初置北平郡 有長城 有關官 有臨渝官 有覆舟山 有碣石”

77) 『明史』 卷187 列傳75, “建議增築塞垣 自山海關西北至密雲古北口”

78) 羅哲文, 「山海關長城的布局與建築勘查記」,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 文物出版社, 1981, 96쪽.

79) 리지린, 『고조선 연구』, 과학원출판사, 1963, 66쪽.

80) 노태돈, 앞의 논문, 1990, 19쪽.

81) 『通典』 卷186 邊防 高句麗, “按尚書云 夾右碣石入於河 右碣石即河赴海處 在今北平郡南二十餘里 則高麗中為左碣石”

82) 『通典』 卷178 州郡 古冀州, “夾右碣石入于河 碣石 海邊山名 在今北平郡盧龍縣也……盧龍漢肥如縣 有碣石山 碣然而立於海旁 故名之 晉太康地志云 秦築長城 所起自碣石 在今高麗舊界 非此碣石也”

석이라 보기보다는 ‘오른쪽으로 끼고’라는 하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 고구려에 있는 좌갈석은 두우의 표현대로 하면 우갈석이 아닌 별도의 갈석이 따로 존재함을 나타낸다. 두우의 우갈석과 좌갈석에 대한 주장은 최초로 요서지역에 두 군데 이상 갈석의 존재에 대한 의미부여가 충분히 개재해 있다.⁸³⁾ 『신당서』 「지리지」에는 노룡에 갈석이 있으면서 유성 동북에 의무려산이 있고 또 갈석산이 있음을 전하고 있다.⁸⁴⁾ 『신당서』 「지리지」에는 이를 ‘又東有’라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무려산은 보통명사인 갈석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갈석이 우뚝 선 돌산의 의미를 지닐 때 의무려산은 돌산으로 확인된다. 실제 의무려산을 답사해 보면 돌로 된 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의무려산에 대한 갈석의 표현을 본고에서는 편의상 의무려산 갈석이라 칭한다.

요서지역에서 2개 갈석의 존재에 대한 입증은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시 군편성에 礪石道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⁸⁵⁾ 수나라 군은 탁군에서 출발하였다.⁸⁶⁾ 탁군은 오늘날 북경의 서남쪽으로 인정되는데 만약 두우가 말한 우갈석 곧 산해관 갈석이 진·한대의 갈석이라면 수나라 군은 갈석도를 편성할 이유가 없다. 탁군에서 산해관 갈석 곧 노룡까지는 매우 가깝고 또 노룡이 수의 세력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원정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 수의 갈석도 편성은 도상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해당 군이 실제로 편제된 사실이 주시된다.⁸⁷⁾ 수나라 원정군에 갈석도가 편제된 것은 그 갈석이 북평군에 있는 갈석 곧 산해관 갈석이 아닌 위 『신당서』 「지리지」에 나온 의무려산 갈석에 이르는 편성군이라 할 수 있다. 고구려는 요하를 넘어 요서를 자주 공격하였다.⁸⁸⁾ 이런 점을 보아도 갈석은 요서지역에 최소 2개 이상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요하 동쪽인 개원과 심양 일대에 또 다른 갈석이 있다고 주장⁸⁹⁾하는 것은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해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수·당대 이후 의무려산에 대한 갈석의 표현은 사라지고 점차 명대⁹⁰⁾에는 산해관 갈석만이 남게 된다.

Ⅲ. 진장성 동단과 낙랑군 수성현

이제 갈석과 낙랑군 수성현이 연결되어 나오는 『진서』 「지리지」와 『사기색은』 그리고 『통전』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우선 『사기색은』과 『통전』, 『태강지리지』 기사를 검토해 보자. 『진서』 「지리지」는 당태종 후반기

83) 윤병모, 『高句麗의 遼西進出 研究』, 景仁文化社, 2011, 139쪽.

84) 『新唐書』 卷48 地理志, “有臨渝關 一名臨閭關 有大海關 有礪石山……東南五十里有居庸塞 東連盧龍 礪石 西屬太行 常山 實天下之險 有鐵門關……柳城 中 西北接奚 北接契丹 有東北鎮醫巫閭山祠 又東有礪石山”

85) 『北史』 卷12 隋本紀, “第九軍可礪石道……凡此衆軍 先奉廟略 絡繹引途 總集平壤”; 『資治通鑑』 卷181 隋紀, “右武侯將軍趙孝才出礪石道”

86) 『隋書』 卷4 帝紀 煬帝下, “大軍集于涿郡……徵天下兵 募民為驍果 集于涿郡……行幸涿郡”

87) 『隋書』 卷64 列傳, “大業九年 重征高麗 以俱羅為礪石道軍將”; 『隋書』 卷65 列傳, “及遼東之役 再出礪石道 還授左候衛將軍 俄遷右候衛大將軍”

88) 윤병모, 앞의 책, 2011, 125쪽.

89) 오현수, 『『회남자』 기재 ‘갈석’과 ‘요수’를 통해 본전기 고조선의 중심지』, 『정신문화연구』 35, 2012, 286쪽.

90) 『明史』 卷40 地理志, “昌黎府東南 西北有礪石山”

에 완성된 것이고 사마정이 편찬한 『사기색은』은 『사기』에 대한 주석으로 당현종 시절에 편찬되었다. 『통전』은 두우가 당 시기인 801년에 완성한다. 두우는 당나라 덕종과 순종 그리고 현종 3대에 걸쳐 재상을 역임한 관계로 기존 사료에 대한 접근이 그만큼 쉬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두우는 사마천 이후 최대의 史家로 평가된다. 두우의 『통전』 특히 낙랑군 수성현에 관한 그의 사료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진서』 「지리지」에 평주조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낙랑군에 6현이 있다며 조선과 수성, 누방 등이 있음을 전하고 있다.⁹¹⁾ 이중 수성현에는 진이 쌓은 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갈석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진서』 「지리지」에 진장성과 관련하여 갈석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해석되며 『사기색은』과 『통전』에는 진장성과 갈석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기색은』에는 다양한 갈석을 표시한다. 북평군 驪城縣에 갈석산이 있음을 전하며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고 장성도 있다고 전한다.⁹²⁾ 임유현에도 갈석산이 있다며 이를 북평의 갈석이라 하여 갈석산이 2개나 있음을 전하고 있다. 『통전』에서도 노룡은 한의 비여현이라며 갈석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태강지리지』를 인용하여 진이 쌓은 장성은 갈석에 있으며 이는 고구려의 구계로 이 갈석은 노룡의 갈석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⁹³⁾ 『통전』은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이 있다면서 진장성과 연결시키고 있는 점이 주시된다. 진장성은 동쪽으로 요수에서 끊어지며 고구려로 들어간다고 당대의 사실을 전하고 있다. 『통전』은 북평 남쪽의 갈석은 우갈석이고 고구려에 있는 것은 좌갈석이라 판단하였다.⁹⁴⁾ 『진서』 「지리지」와 『사기색은』, 『통전』 기사를 검토하면 갈석은 요서지역에 2개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 고구려 구계에 있는 갈석이 진장성의 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통전』은 더 나아가 진장성은 요수까지 연결된다고 정리하였다.

『태강지리지』는 서진 태강 3년인 282년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⁵⁾ 태강은 281년부터 289년 사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태강지리지』가 『사기색은』과 『통전』은 물론 6세기 초반에 편찬된 『수경주』⁹⁶⁾에도 인용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진서』 「지리지」와 『수경주』에서 『태강지리지』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태강지리지』의 사료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태강지리지』는 낙랑군 수성현과 진장성, 갈석의 결합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배가된다. 『태강지리지』의 이런 기록이 후대의 인식이라는 견해⁹⁷⁾와 함께 『태강지리지』의 낙랑군 수성현 기록을 가지고 산해관 갈석이라고 단정하는 주장⁹⁸⁾은 오히려 타당치 않다. 진장성이 『진서』 「지리지」에는 낙랑군 수성현에 있다고 하는 기록을 중시하여야 한다. 『태강지리지』

91) 『晉書』 卷14 地理志, “咸寧二年十月 分昌黎 遼東玄菟帶方樂浪等郡國五置平州 統縣二十六 戶一萬八千一百……樂浪郡漢置 統縣六 戶三千七百 朝鮮周封箕子地 屯有渾彌遂城秦築長城之所起 鏤方駟望”

92) 『史記索隱』 卷1, “地理志云 碣石山在北平驪城縣西南 大康地理志云 樂浪遂城縣 有碣石山長城所起 又水經云 在遼西臨遼縣南 水中 蓋碣石山有二 此云夾右碣石 入于海 當是北平之碣石”

93) 『通典』 卷178 州郡 古冀州, “盧龍漢肥如縣 有碣石山 碣然而立於海旁 故名之 晉太康地志云 秦築長城 所起自碣石 在今高麗舊界 非此碣石也”

94) 『通典』 卷186 邊防 高句麗, “碣石山在漢樂浪郡遂成縣 長城起於此山 今驗長城東載遼水而入高麗 遺址猶存……按尚書云 夾右碣石入於河 右碣石即河赴海處 在今北平郡南二十餘里 則高麗中為左碣石”

95) 步亞男, 「王謨輯〈太康地記〉研究」, 『黑龍江史志』 2010: 13, 2010.

96) 『水經注』 卷16, “晉太康地記道記太康地理記案近刻訛作晉”

97) 공석구, 「秦 長城 東端인 樂浪郡 遂城縣의 위치문제」, 『한국고대사연구』 81, 2016, 242쪽.

98) 공석구, 앞의 논문, 2016, 257쪽.

를 인용하고 있는 『통전』에서 진장성은 ‘今驗’이라며 요수까지 이어지고 그 유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두우의 생존 당시 고구려는 이미 멸망하고 없어진 뒤였으나 두우가 ‘고려구계’라 하며 이를 언급한 것은 唐代에 각인된 고구려 인식이 매우 강렬하였을 증명한다. 『진서』 「지리지」의 낙랑군 6현은 『태강지리지』 기사를 보강해 준다. 『진서』 「지리지」와 『태강지리지』, 『통전』 등의 사실을 종합하면 낙랑군 수성현은 『신당서』 「지리지」에 나타난 의무려산 갈석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태강지리지』의 낙랑군 수성현 기록은 수성현의 이동 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만 해결된다.

조위는 220년에 동이교위를 두어 양평에 거주하게 하였고 공손씨가 조위에 멸망당한 뒤인 238년에 역시 양평에 호동이교위를 두었다. 진은 276년에 창려와 요동, 현도, 대방, 낙랑 등 군국 5개를 두어 평주에 귀속시킨다.⁹⁹⁾ 이때 낙랑군 6현이 설치되며 공손씨는 낙랑군을 분리하여 대방군을 만들었다. 조위는 237년과 240년 사이에 대방태수와 낙랑태수를 바다를 통해 건너가며 대방과 낙랑을 평정하였다.¹⁰⁰⁾ 공손씨에 의해 낙랑이 분열되며 대방이 설치되고 조위에 의해 대방과 낙랑이 점령당하였다면 낙랑은 이미 소멸화 과정을 걷고 있다고 판단된다. 낙랑군이 점차 약화되고 그 범위도 축소되었다는 견해이다.¹⁰¹⁾ 그렇기 때문에 276년 진에 의한 낙랑군이 전한대 25현과 후한대 18현과 비교하여 매우 축소된 모습인 조선, 둔유, 훈미, 수성, 누방, 사망의 6현을 보이고 있다. 진대 낙랑군은 6현만을 가지고 본 거주지인 평양에서 철수하며 요동으로 이동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기원후 1세기 후반 경에 평양의 낙랑이 요동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점¹⁰²⁾이 검토되지만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04년부터 207년 사이¹⁰³⁾에 낙랑군이 분열하며 대방군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서진대 요동군은 후한대에 비해 호구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¹⁰⁴⁾ 진대 태강 연간인 280년부터 285년 사이에 요동과 낙랑, 대방의 역할은 축소되고 동이교위가 신설되며 그 권한을 대신하였다.¹⁰⁵⁾ 동이교위는 조위시절에도 있었지만 진 태강 연간에 들어와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위에 이어 동이교위 치소는 양평에 있었지만 고구려의 공격으로 화릉으로 옮겨간다.¹⁰⁶⁾

고구려는 286년 이미 쇠약해진 낙랑을 놔두고 백제의 후원을 얻는 대방과 대립하게 된다.¹⁰⁷⁾ 276년 낙랑이 요동으로 이동되어 갔어도 낙랑이 평양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은 아니었다. 304년 대방과 백제가 협력하여 낙랑을 공격하자¹⁰⁸⁾ 고구려는 313년 10월 아예 낙랑의 잔여세력을 없애 낙랑의 흔적을 지우고¹⁰⁹⁾ 314년

99) 『晉書』 卷14 地理志 平州, “後漢末 公孫度自號平州牧 及其子康 康子文懿並擅據遼東 東夷九種皆服事焉 魏置東夷校尉 居襄平 而分遼東昌黎玄菟帶方樂浪五郡爲平州 後還合爲幽州 及文懿滅後 有護東夷校尉居襄平”

100)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韓,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 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101) 洪承賢, 「曹魏時期 樂浪郡 회복과 遼東 인식의 변화」, 『中國學報』 16, 2007, 175쪽.

102) 李道學, 「樂浪郡의 推移와 嶺西 地域 樂浪」, 『東아시아 古代學』 34, 2014, 29쪽.

103) 오영찬, 『낙랑군 연구』 사계절, 2006, 183쪽.

104) 『後漢書』 卷33 郡國志, “遼東郡 十一城 戶六萬四千一百五十八 口八萬一千七百一十四”; 『晉書』 卷14 地理志, “遼東國秦立爲郡 漢光武以遼東等屬青州 後還幽州 統縣八戶五千四百”

105) 정지은, 「3~4세기 백제(百濟)의 대중(對中)교섭과 동이교위(東夷校尉)」, 『역사와 현실』 112, 2019, 143쪽.

106) 윤용구, 「고대중국의 동이관(東夷觀)과 고구려-동이교위(東夷校尉)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5, 2005, 74쪽.

107)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高句麗伐帶方 帶方請救於我 先是 王娶帶方王女寶菓爲夫人 故曰 帶方我舅甥之國 不可不副其請 遂出師救之 高句麗怨 王慮其侵寇 修阿旦城·地城備之”

에는 대방마저 멸망시켜 버렸다.¹¹⁰⁾ 이를 통해 볼 때 낙랑은 3세기 중반 이후 멸망화의 과정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¹¹¹⁾ 잔존하던 평양 낙랑에 대한 고구려의 접수는 『삼국사기』에는 313년 10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된다. 왕운묘지명에서 왕운의 조상들은 313년에 낙랑으로 피신한다.¹¹²⁾ 이때의 낙랑을 평양으로 보는 견해¹¹³⁾가 있고 313년 10월 이후 요서 대릉하 지역으로 교치된 낙랑으로 보는 견해¹¹⁴⁾도 있다. 당시 평양의 낙랑은 멸망하기 직전의 흔적만이 남은 상태여서 평양의 낙랑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교치된 낙랑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위치가 요동인지 아니면 요서인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평양 낙랑은 『삼국사기』 313년 10월 조 이후에는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자치통감』에서는 요동장동에 대한 기술이 313년 4월 조에 나타난다. 313년 4월 이전 요동장동의 기술을 볼 때에 낙랑은 아직 요동에 있었던 것이라 파악할 수 있다. 요동장동은 하성에서 319년 고구려 장군과 전투를 벌이고 극성으로 돌아온다.¹¹⁵⁾ 그렇다면 319년에 요동에 있던 낙랑군이 요서지역 극성으로 교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313년 당시 왕운선조가 요서지역의 대릉하 유역에 교치된 낙랑군으로 피신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13년 당시 낙랑군은 요동에 있었다.

276년 진에 의해 낙랑은 요동으로 이동한다. 요동으로 옮긴 낙랑은 313년 요동장동에 의해 접수되며 낙랑과 대방의 세력을 합친 장동은 그 틈을 이용해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극성의 모용외에 귀부한다.¹¹⁶⁾ 319년 모용외는 낙랑군의 잔여 세력인 千餘家를 극성에 교치하고 그 명맥을 이어간다.¹¹⁷⁾ 모용외의 막료인 배의가 낙랑태수가 되고 모용외의 아들인 모용황이 조선공에 임명된 것은 바로 이때의 사정을 알려준다.¹¹⁸⁾ 333년 모용외가 죽고 현도태수와 대방태수, 요동태수가 등장하는 것¹¹⁹⁾을 보아도 333년 이전 현도와 요동, 대방, 낙랑은 모용씨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된다.¹²⁰⁾ 338년 조선령과 낙랑태수가 보이며 극성으로 돌아왔다는 기사도 이를 뒷받침한다.¹²¹⁾ 모용황은 함강 7년인 341년에 극성에서 용성 곧 화릉이며

108)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七年 春二月 潛師襲取樂浪西縣 冬十月 王爲樂浪大校守所遣刺客賊害薨”

109)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 “十四年 冬十月 侵樂浪郡 虜獲男女二千餘口”

110)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 “秋九月 南侵帶方郡”

111) 윤병모, 「후한시기 요동의 낙랑」, 『유라시아문화』 8, 2023, 230쪽.

112) 『魏故使持節撫軍將軍瀛州刺史王簡公墓誌銘』, “公諱溫 字平仁 燕國樂浪樂都人 啓源肇自姬文 命氏派於子晉 漢司徒霸晉司空沉之後也 祖評 魏征虜將軍平州刺史 識萬詳粹 譽光遐迩 父萇 龍驤將軍樂浪太守 雅亮淹敏 聲播鄉邑 昔逢永嘉之末 高祖准晉太中大夫 以祖司空幽州牧凌 遇石氏之禍 建興元年自薊避難樂浪 因而居焉”

113) 공석구, 앞의 논문, 2019, 316쪽.

114) 나유정, 「『王溫 墓誌銘』 교감과 역주」, 『목간과 문자』 29, 2022, 223쪽.

115) 『資治通鑑』 卷91 晉紀, “高句麗將如奴子據于河城 虜遣將軍張統掩擊 擒之 俘其衆千餘家 以崔燾 高瞻 韓恒 石琮歸于棘城 待以客禮”

116) 『資治通鑑』 卷88 晉紀, “建興元年 夏四月……遼東張統據樂浪·帶方二郡 與高句麗王乙弗利相攻 連年不解 樂浪王遵說統帥其民千餘家歸虜 虜爲之置樂浪郡 以統爲太守 遵參軍事”

117) 『晉書』 卷108 載記 慕容廆, “魏初率其諸部入居遼西 從宣帝伐公孫氏有功 拜率義王 始建國於棘城之北”

118) 『晉書』 卷108 載記 裴嶷, “出爲遼東相 轉樂浪太守”; 『晉書』 卷108 載記 慕容皝, “太寧末 拜平北將軍 進封朝鮮公”

119) 『資治通鑑』 卷95 晉紀, “夏五月甲寅 遼東武宣公慕容廆卒 六月 世子皝以平北將軍行平州刺史 督攝部內 赦繫囚 以長史裴開爲軍諮祭酒 郎中令高翽爲玄菟太守 皝以帶方太守王誕爲左長史 誕以遼東太守陽鶩爲才而讓之 皝從之 以誕爲右長史”

120) 천관우, 앞의 논문, 1977, 29쪽.

121) 『資治通鑑』 卷96 晉紀, “朝鮮令昌黎孫泳帥衆拒趙 大姓王清等密謀應趙 泳收斬之 同謀數百人惶怖請罪 泳皆釋之 與同拒守 樂浪太守鞠訢以境內皆叛 選鄉里壯士二百餘人共還棘城”

오늘날 조양인 곳에 그 首府를 옮긴다.¹²²⁾ 모용황의 뒤를 이은 모용준은 화룡을 떠나 증원으로 진출하며 전연을 이루고 부씨의 전진과는 호각지세를 이룬다. 전연은 370년에 전진에게 멸망당하고 화룡에 고치되었던 낙랑과 대방군은 전진의 소유로 돌아간다. 전진이 멸망하고 386년 화룡에 후연이 들어서자 낙랑과 대방은 다시 모용씨에게 돌아갔다. 432년 북위는 북연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화룡에 있던 낙랑과 대방 그리고 현도 등 6군 3만여 호를 유주로 옮겼다.¹²³⁾ 이때 낙랑군의 조선민도 북평군과 가까운 비여현으로 이동한다.¹²⁴⁾ 이후 교군으로서의 낙랑과 대방은 이때부터 소멸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520년과 525년 사이에 낙랑군은 다시 설치되며¹²⁵⁾ 537년에는 낙랑군이 남영주로 이전되었다.¹²⁶⁾ 539년 한현도가 '낙랑군조선현인'이라 한 것도 이때의 사정을 알려 준다.¹²⁷⁾ 이 시기 남영주는 천진의 서쪽인 保定으로 밝혀지며 북제 시절인 556년 교군으로서의 낙랑군은 최후를 맞는다.¹²⁸⁾

진 시절인 276년 낙랑군이 요동으로 이동하면서 수성현이 보인 이후에 『위서』 등에는 수성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500년대 전반기에 '낙랑수성인'을 자처하는 자들이 북위인 묘지명에 나타났다. 북위 태무제의 증손자인 원원평 처인 왕씨묘지명에 왕씨가 509년 사망하며 낙랑수성인이라 자칭한다. 낙랑에 대해 名邦이라 하였고 왕씨에 대해서는 名宗이라 하였다.¹²⁹⁾ 안낙왕의 부인인 한씨도 513년 사망하며 낙랑수성인이라 하였고 여기에도 낙랑이 명방이라 나오고 한씨가 명종이라 하였다.¹³⁰⁾ 514년에 사망한 왕정묘지명에도 낙랑수성인이라는 호칭이 보이고 있다.¹³¹⁾ 522년에 사망한 왕기묘지명에서도 낙랑수성인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¹³²⁾ 530년의 王舒묘지¹³³⁾에서도 낙랑수성인이라는 貫籍이 등장한다.¹³⁴⁾ 515년까지 살은 王敬妃¹³⁵⁾는 영주 낙랑군을 본적으로 하고 있다. 영주 낙랑군은 낙랑군이 요서로 고치된 이후의 사실에 해당한다.¹³⁶⁾

122) 『晋書』 卷109 載記 慕容皝, “咸康七年 皝遷都龍城”

123) 『魏書』 卷4 世紀紀, “九月乙卯 車駕西還 徙營丘 成周 遼東 樂浪 帶方 玄菟六郡民三萬家於幽州 開倉以賑之”; 『魏書』 卷97 列傳 海夷馮跋, “延和元年 世祖親討之 交通嬰城固守 文通營丘 遼東 成周 樂浪 帶方 玄菟六郡皆降 世祖徙其三萬餘戶於幽州”

124) 『魏書』 卷106 地形志, “朝鮮二漢 晉屬樂浪 後罷 延和元年徙朝鮮民於肥如 復置 屬焉”

125) 『魏書』 卷106 地形志, “樂良郡前漢武帝置 二漢 晉曰樂浪 後改罷 正光末復治連城”

126) 『魏書』 卷106 地形志, “樂良郡天平四年置”

127) 『韓顯度墓誌銘』, “元象二年四月十七日樂良郡朝鮮縣人韓顯度銘誌”

128) 친관우, 앞의 논문, 1977, 52쪽.

129) 『魏黃城大將軍太傅大司馬安定靖王第三子給事君夫人王氏之墓誌』, “夫人王氏樂浪遼城人也燕儀同三司武邑公波之六世孫也……茂齡卅永平二年 歲次星紀五月丁丑朔廿三日乙亥卒于京第……樂浪名邦王氏名宗”

130) 『大魏揚州大將軍太傅大司馬安樂王第三子給事君夫人韓氏之墓誌』, “夫人韓氏遼城人也燕儀同三司武邑公波之六世孫聖朝幽營二州刺史廣陽靖侯道岷之二女翼齊二州刺史燕君康公昌黎人黃麒麟之外孫……茂齡三十有二延昌二年歲次星紀五月丁丑朔廿三日己亥卒于京第……樂浪名邦韓氏名宗”

131) 『魏故恒州治中晉陽男王君墓誌銘』, “君諱禎字宗慶樂浪遼城人也燕儀同三司武邑公波之六世孫高祖禮班……曾祖定國……祖唐成……父光祖……君既承先爵除員外散騎侍郎在省未幾轉恒州治中……春秋卅有九延昌三年四月己卯朔十日戊子卒於洛陽永康里奧來歲三月甲辰朔廿九 日壬申遷葬於芒阜”

132) 『魏故處士王君墓誌銘』, “君諱基字洪業樂浪遼城人……春秋卅……有二正光三年歲次壬寅二月癸亥朔廿四日丙戌薨於洛陽永康里”

133) 趙超, 『魏故王君墓誌銘』, 『漢魏南北朝墓誌彙編』, 天津古籍出版社, 2008, 272쪽.

134) 윤용구, 「북위대 낙랑·고구려계 이주민-평성 출토 문자자료를 중심으로」, 『인문학술원』 17, 2021, 152쪽.

135) 葉煒·劉秀峰 主編, 『公孫氏妻王敬妃墓誌』, 『墨香閣藏北朝墓誌』, 上海古籍出版社, 2016, 124쪽.

136) 최진열, 「5~6세기 2개의 요동(遼東) - 북위(北魏)의 천하관(天下觀)과 역사예곡이 만들어낸 고구려(高句麗)의 요동과 북위의 요동」, 『동북아역사논총』 62, 2018, 189쪽.

500년대 전반기에 등장하는 낙랑을 313년 평양에 존재하였던 낙랑인들을 회고한 것이라는 주장¹³⁷⁾과 함께 낙랑군 조상들의 본적이라는 의미밖에 없다는 견해¹³⁸⁾는 모두 타당하지 않다. 이미 200여년 전에 멸망한 평양의 낙랑에 대한 관념이 이때까지 존속할리는 없다는 점이다.¹³⁹⁾ 당에 끌려간 고구려인들의 족속의식은 3대를 흘러가면 없어졌기 때문이다.¹⁴⁰⁾

500년대 전반기에 낙랑 수성인을 자처한 사람들이 교치된 낙랑군에 보이는 것은 432년 복위가 화룡에 있던 낙랑과 대방, 현도 등 6군 3만여 호를 유주로 옮긴 과정에서 나타난다. 곧 이는 朝鮮民에 해당한다. 이들은 276년 요동에 이치된 진대 낙랑군 수성현의 계보를 이은 자들에 해당하며 자신들을 名宗이라 자부하였다. 낙랑에 대해 名邦이라 자부심을 가졌던 복위인들에 해당한다. 요동 낙랑군 수성현에 대한 인식은 수나라에 의한 고구려 침공시 그 편성군에 遂城道가 편제된 것에서도 나타난다.¹⁴¹⁾ 북경 서남쪽 탁군에서 출발한 수나라 원정군의 수성도는 수 세력권 하에 있던 요서가 그 목적지일 수는 없다. 수나라 수성도의 원정 목적지는 요동에 있는 수성 곧 진대에 요동에 이치된 낙랑군 6현의 하나로 나오는 수성현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볼 때에 『진서』 「지리지」와 『사기색』, 『통전』에 보인 낙랑군 수성현은 진장성과 연계되어 의무려산 갈석으로 인정된다. 그럴 경우 『진서』 「지리지」에 나온 낙랑군 6현 중의 수성현은 평양의 낙랑이 요동으로 이전한 것에 해당한다. 결국 진장성과 갈석, 낙랑군 수성현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낙랑군 수성현은 의무려산의 갈석 일대라 인정된다. 432년 이후는 수성현은 다시 유주 부근으로 이전한다. 500년대 이후 복위인 묘지명에서 나타나는 낙랑 수성인들은 바로 이 시기의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서술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기』 「흉노열전」에 연장성의 끝은 양평으로 진장성은 요동에 그 동단이 기술되어 있다. 『삼국지』 「부여전」에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연·진장성은 의무려산 부신까지는 분명히 확인되고 부신을 넘어 양평까지는 기록으로만 확인된다. 『회남자』와 『염철론』, 『전한기』와 『통전』 기사를 참고하면 연·진장성은 적어도 요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두우는 『통전』에서 장성이 요수를 끊고 고구려 구계에 진입하였고 그 유적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연·진장성을 구분할 경우 진장성은 요하에 이르렀던 것임이 분명하지만 연장성이 『사기』 「흉노열전」의 양평을 근거로 하여 요하를 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두우의 전문에도 불구하고 연장성 유적이 양평 곧 요

137) 오영찬, 「낙랑·대방군 지배세력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121쪽.

138) 최진열, 「北魏의 遼西 지배와 그 성격」, 『東洋史學研究』 147, 2019, 195쪽.

139) 이성규, 앞의 논문, 2005, 485쪽.

140) 정호섭, 「高句麗史에 있어서의 이주(migration)와 디아스포라(diaspora)」, 『先史와 古代』 53, 2017, 160쪽; 정운용, 앞의 논문, 2018, 115쪽.

141) 『資治通鑑』 卷181, 隋紀, “右武候將軍趙孝才出碣石道 涿郡太守檢校左武衛將軍崔弘昇出遂城道”

양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지 않다. 『한서』에 요양과 양평이 겹쳐있을 때 또 『신당서』에 요동성이 한 양평이라 하였을 때에 양평의 위치를 요양으로는 설정할 수 있다. 두우의 전언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두우의 당대까지는 토축된 연장성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 천리장성이 토축으로 인정할 때에 오늘날 회덕에서 노변강으로 그 흔적을 남긴다면 두우의 전언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진장성이 연장성을 그대로 수축하였다고 한다면 진장성의 동단은 부신에서 토석혼축으로 끝났으며 토축으로 요하까지는 이어졌다고 인정된다.

『사기』 「항우본기」에 연왕 한광을 요동왕으로 임명한 기록과 『사기』 「월표」에 연을 나눠 요동을 삼은 점, 『사기』에서 요동을 연의 끝으로 인식한 사실등으로 볼 때에 『사기』에서 말하는 요동은 현재의 요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기』 「유림열전」과 『한서』 「무제기」에 나오는 요동고묘 사건의 요동도 요서 차려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를 보아도 분명해 진다. 『사기』에 연왕 한광을 요동왕으로 임명한 점을 볼 때에 『사기』에서 말하는 요동은 오늘날 요동이라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진서』에는 285년부터 289년 사이에 진장성을 수축하여 온성부터 갈석에 이르렀고 3천리에 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온성이 제수에 인접하였다면 『진서』 「당빈전」에서 보이는 3천리 장성은 산동성 제수부터 시작하여 갈석에 이르렀던 것임을 판단할 수 있다. 이 갈석의 경우 산동성 제수부터 시작한 3천리 장성이 산해관 갈석에 이르렀다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거리에 해당한다. 『진서』 「당빈전」에서 전하는 갈석은 3천리라는 기준을 볼 때에 『신당서』 「지리지」에서 말하는 갈석 곧 유성 동쪽의 의무려산 갈석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진서』 「당빈전」에 전하는 온성으로부터 갈석까지의 3천리는 요하와 가까운 의무려산 갈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북제 시기의 장성은 연·진대 장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지적된다. 『진서』 「지리지」와 『사기색은』과 『통전』에 인용된 『태강지리지』를 검토하면 갈석은 요서지역에 2개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 수나라 원정군에 갈석도가 편제된 것은 그 갈석이 북평군에 있는 갈석 곧 산해관 갈석이 아니라 『신당서』 「지리지」에 나온 의무려산 갈석에 이르는 편성군이라 할 수 있다.

평양의 낙랑은 『삼국사기』 313년 10월 조 이후에는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자치통감』에서는 요동장통에 대한 기술이 313년 4월 조에 나타난다. 313년 4월 이전 요동장통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낙랑은 아직 요동에 있었던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319년에 요동에 있던 낙랑군이 요서지역 극성으로 교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13년 당시 낙랑군은 요동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432년 북위는 화룡에 있던 낙랑과 대방 그리고 현도 등 6군 3만여 호를 유주로 옮겼다. 이때 낙랑군의 조선민도 북평군과 가까운 비여현으로 옮겨간다. 이후 교군으로서의 낙랑과 대방은 이때부터 소멸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520년과 525년 사이에 낙랑군은 다시 설치되었다. 537년에 남영주로 낙랑군이 이전되며 낙랑의 최후를 장식하게 된다.

500년대 전반기에 낙랑수성인을 자처한 사람들이 교치된 낙랑군에 보이는 것은 앞서 432년 북위가 화룡에 있던 낙랑과 대방, 현도 등 6군 3만여 호를 유주로 옮긴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276년 요동에 이치된 진대 낙랑군의 수성현의 계보를 이은 자들에 해당한다. 요동 낙랑군 수성현에 대한 인식은 수나라에 의한 고구려 침공시 그 편성군에 수성도가 편제된 것에서도 나타난다. 북경 서남쪽 탁군에서 출발한 수나라 원정군 수성도는 수의 세력권 하에 있던 요서가 그 목적지일 수는 없다. 수나라 수성도의 원정 목적지는 요동에 있는 수성 곧 진대에 요동에 이치된 낙랑군 6현의 하나로 나오는 수성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에서 『진서』 「지리지」와 『사기색은』, 『통전』에 보인 낙랑군 수성현은 진장성과 연계되며 의무려산 갈석으로 인정된다. 그럴 경우 『진서』 「지리지」에 나온 낙랑군 6현 중의 수성현은 평양의 낙랑이 요동으로 이전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진장성과 갈석, 낙랑군 수성현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낙랑군 수성현은 의무려산의 갈석 일대라 인정된다. 432년 이후 수성현은 다시 유주 부근으로 이전하였다. 500년대 이후 북위인 묘지명에서 나타나는 낙랑수성인들은 바로 이 시기의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括地志』 『舊唐書』 『明史』 『北齊書』 『史記』 『山海經』 『三國志』 『三國史記』 『水經注』 『隋書』 『新唐書』 『鹽鐵論』 『魏書』 『資治通鑑』 『前漢紀』 『晉書』 『周史』 『通典』 『漢書』 『後漢書』 『淮南子』

리지린, 『고조선 연구』, 과학원출판사, 1963.

박대재,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2006.

오영찬, 『낙랑군 연구』, 사계절, 2006.

윤병모, 『高句麗의 遼西進出 研究』, 景仁文化社, 2011.

이병도,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강인숙, 「기원전 4~3세기 고조선의 서변」,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권오중, 「古代 遼東郡의 位置問題 試論」, 『吉玄益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1996.

공석구, 「中國歷史地圖集의 평양지역까지 연결된 秦 長城에 대한 검토」, 『先史와 古代』 43, 2015.

공석구, 「秦 長城 東端인 樂浪郡 遂城縣의 위치문제」, 『한국고대사연구』 81, 2016.

공석구, 「요서지역으로 옮겨간 낙랑군의 추이」, 『白山學報』 115, 2019.

김한규, 「歷史上 ‘遼東’의 概念과 ‘中國史’의 範疇」, 『吉玄益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1996.

나유정, 「王溫 墓誌銘 교감과 역주」, 『목간과 문자』 29, 2022.

노태돈,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23, 1990.

배현준, 「연진한 장성에 대한 중국학계의 최근 연구 동향-『요령성 연진한 장성 자원 조사 보고』 분석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72, 2023.

손영중, 「진나라 만리장성의 동단(1)」, 『사회과학원학보』 1, 사회과학출판사, 2003.

손영중, 「진나라 만리장성의 동단(2)」, 『사회과학원학보』 2, 사회과학출판사, 2003.

吳江原, 「戰國時代 燕나라 燕北長城 동쪽 구간의 構造的 實體와 東端」, 『先史와 古代』 33, 2010.

오대양·조원진, 「2000년대 북한학계의 단군·고조선연구 현황 검토」, 『先史와 古代』 54, 2017.

오현수, 『『회남자』 기재 ‘갈석’과 ‘요수’를 통해 본전기 고조선의 중심지』, 『정신문화연구』 35, 2012.

오현수, 「수경주(水經注)의 고조선 지명 연구」, 『고조선단군학』 49, 2022.

尹乃鉉, 「漢四郡의 樂浪郡과 平壤의 樂浪」, 『韓國學報』 41, 1985.

윤내현, 「朝·燕戰爭의 전개와 국경 변화」, 『단군학연구』 20, 2009.

윤병모, 「건창 동대장자유적과 고조선」, 『동북아고대역사』 4, 2021.

윤병모, 「연·진과 고조선의 전쟁」, 『軍史』 122, 2022.

윤병모, 「후한시기 요동의 낙랑」, 『유라시아문화』 8, 2023.

윤용구, 「고대중국의 동이관(東夷觀)과 고구려-동이교위(東夷校尉)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5, 2005.

- 윤용구, 「북위대 낙랑·고구려계 이주민-평성 출토 문자자료를 중심으로」, 『인문학술원』 17, 2021.
- 李道學, 「樂浪郡의 推移와 嶺西 地域 樂浪」, 『東아시아 古代學』 34, 2014.
- 이성규, 「4세기 이후의 낙랑교군과 낙랑유민」, 『동아시아역사속의 중국과 한국』, 도서출판 서해문집, 2005.
- 이중수, 「遼東地域 燕秦漢 長城 調査現況 및 問題點 檢討」, 『韓國史學報』 43, 2011.
- 鄭雲龍, 「樂浪郡 滅亡 以後 遺民의 方向」, 『韓國史學報』 70, 2018.
- 정지은, 「3~4세기 백제(百濟)의 대중(對中)교섭과 동이교위(東夷校尉)」, 『역사와 현실』 112, 2019.
- 정호섭, 「高句麗史에 있어서의 이주(migration)와 디아스포라(diaspora)」, 『先史와 古代』 53, 2017.
- 조원진, 「고조선과 燕나라의 전쟁과 요동」, 『先史와 古代』 62, 2020.
- 조원진, 「漢書의 古朝鮮·漢郡縣·箕子 자료에 대한 검토」, 『東洋學』 92, 2023.
- 千寬宇, 「灤河 下流의 朝鮮」, 『史叢』 21·22, 1977.
- 최진열, 「5~6세기 2개의 요동(遼東) - 북위(北魏)의 천하관(天下觀)과 역사왜곡이 만들어낸 고구려(高句麗)의 요동과 북위의 요동」, 『동북아역사논총』 62, 2018.
- 최진열, 「北魏의 遼西 지배와 그 성격」, 『東洋史學研究』 147, 2019.
- 洪承賢, 「曹魏時期 樂浪郡 회복과 遼東 인식의 변화」, 『中國學報』 16, 2007.
- 洪承賢, 「燕·秦·漢長城수축을 통해 본 衛滿朝鮮의 西界」, 『韓國史學報』 70, 2018.
- 郭沫若 主編, 『中國史稿地圖集』上, 中國地圖出版社, 1979.
- 羅哲文, 「山海關長城的布局與建築勘查記」,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 文物出版社, 1981.
-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第1·2冊, 中國地圖出版社, 1982.
-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釋文匯編 東北卷』,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8.
- 稻葉岩吉,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 『史學雜誌』 21: 2, 1910.
- 鄭紹宗, 「河北省戰國, 秦, 漢時期古長城和城障遺址」,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 文物出版社, 1981.
- 馮永謙·何溥濤, 『遼寧古長城』, 遼寧人民出版社, 1986.
- 項春松, 「昭烏達盟燕秦長城遺址調查報告」,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 文物出版社, 1981.

* 이 논문은 2023년 8월 30일에 투고되어,
2023년 9월 13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3년 10월 3일까지 심사하고,
2023년 10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Review of the Eastern end of the Great Wall of Qin and Lelangjun Suichengxian

Yoon, Byoungmo*

This article examines the eastern end of the Great Wall of Qin and the Jieshi and Lelangjun Suichengxian issues. Lelangjun Suichengxian shown in 『Jinshu Geography』, 『Shijisuoyin』 and 『Tongdian』 appears in connection with Great Wall of Qin. This problem is also linked by 『Taiikang Geography』. These three keywords, Qin's Great Wall, Jieshi, and Lelangjun Suichengxian, are complexly connected and cited in 『Tongdian』. In that case, Suichengxian among the Lelangjun 6xians in 『Jinshu Geography』 can be said to correspond to the transfer of Lelang from Pyeongyang to Liaodong. Jieshi in 『Tongdian』 is recognized as Jieshi on the border of Liaodong and Liaoxi. Soon Lelangjun Suichengxian is judged to be Yiwulu Mountain Jieshi. Lelangjun Suichengxian moved to the vicinity of Youzhou again after 432. This corresponds to Lelangjun's move to the vicinity of Beijing. The Lelangjun Suichengxians appearing in the tombstones of Beiwei people after the 500s are judged to convey the contents of this period. In addition, Suichengdao, seen in the name of the Sui country expeditionary force, is the name of the actually organized army, and it can be said that the name originates from Liaodong Lelangjun Suichengxian.

[Keywords] Yan's Great Wall, Qin's Great Wall, The eastern end of the Qin's Great Wall, Lelangjun Suichengxian, Jieshi, Liaodong

*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The humaniti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